

## 살기 좋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태안’



### 한 상 기 | 태안군수

1946년 충남 태안 출생  
200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2002년 충청남도 정책관리국장  
2005년 충청남도 지방행정국장  
2007년 태안문화원장  
2012년 새누리당충남도당 부위원장  
2014년 민선 6기 태안군수

#### ▲ 당선된 소감은?

태안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선의 영광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제13대 태안군수로의 당선은 저 개인의 당선이 아닌 진정한 태안의 행복시대를 바라며 투표장으로 향했던 군민 모두의 승리다.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선진 자치군정'을 통해 '희망찬 태안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선거운동 기간 제시했던 공약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해 저를 선택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많은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원칙과 신뢰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함께 경쟁했던 타 후보들과 군민 모두가 대화합하는 모습으로 태안의 발전을 선도하겠다.

준비된 행정전문가의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나서 승리한 만큼, 40여 년의 중앙과 지방행정의 폭넓은 경험을 최대한 살려 관리적 성격의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군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 저의 경험이 접목된 군정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태안의 행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 ▲ 현재 태안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는다면?

태안군의 현안을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생각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사고 이후 6년이 넘게 군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 유류유출사고의 뒷수습다. 사정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로 본안소송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 피해대책위원회와 소송대리인간 소송 쟁점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체제를 지속적으로 주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중공업 발전기금에 대한 배분과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피해 배 보상과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과거의 다양한 산정자료를 확보하고, 군 자체연구 용역에 따라 출연금 운용방식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1차 산업이 침체되고 있고, 관광소득의 지역 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게 태안경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 현안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정주환경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이전과 태안경찰서 신설 등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태안의 정주여건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간선 및 집산도로의 확충과 정비를 실시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군민 실생활과 연결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 한층 살기 좋은 모습의 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역점사업 및 공약?

민선 6기 역점 추진 사업으로 크게 5개 분야를 구상하고 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경찰서 신설 등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아 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군은 인근 대신항을 출입하는 유조선들의 길목인 만큼, 유류사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정착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안흥항 해양자원, 만리포 및 안면도 관광지, 기업도시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군의 중심인 태안읍이 활성화되도록 주민체감형 도시 재생사업과 센터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안 등 중부 서해안권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군 주력산업을 관광 일변도에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와 행정이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확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약은 크게 ①13억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해안 거점관광도시 조성 ②태안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실

## ● 특집16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천 ③인재육성을 위한 명품·안전 교육 ④행복하고 안전한 태안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⑤사람 중심의 행복한 태안 등 5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대표 공약은 첫째, 「서해안 거점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해안도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이미 매립된 서북부지역 공유수면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안면도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 서해안 경제·물류 거점으로 태안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둘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실천」은 마리아항만 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테저 기업도시 조기 완공, 중합에너지특구 활성화 등으로 경제발전을 이끄는 한편, 전담 T/F팀을 만들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영세 슈퍼마켓 공동 구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경제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실현하겠다.

셋째, 「인재육성 명품·안전교육」은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와 명문고교 육성,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교육 등으로 구체화 하겠다. 또한, 학교주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과 후 안전귀가 대책 마련과 사설학원 운영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넷째, 「행복하고 즐거운 태안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은 거점별 노인 복지관 건립, 보건의료원 현대화, 119응급 헬기 지원시스템 구축, 소아과 병원 유치, 다문화가정 군립유아원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택시 안전망 구축,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확대, 청소년 문화육성, 어르신 노래교실, 노인대학, 건강교실 지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계층별, 부문별 태안 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태안」을 위해 군민 레포츠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백화산을 테마로 4계절 꽃 축제를 개발하여 태안을 중추기능을 강화하겠다.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and 수산업 기술센터 설치,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제가 선거 당시 내건 핵심 슬로건이 ‘행복의 파도소리가 들리는 태안’이다.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한 태안」을 위해 분야별 선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 정보문화센터 건립과 지역별 선도도로의 확포장, 항·포구 확장 정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장하는 한편, 세계자원봉사자 대회 유치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역량 강화도 병행해 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태안군이 최근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기초로 미래 비전을 산출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0년 태안은 명실상부 서해안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지리적 장점을 활용, 13억 중국인 관광수요를 겨냥한 관광휴양 거점이자, 환황해 시대 경제중심으로의 태안 비전을 그리고 있다.

감성이 충전되고 활력이 상승하는 해양 휴양테저단지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역외교류 네트워크가 강화된 역동적인 농어촌이 현실화될 것이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환경을 토대로 누구나 살기 좋고 활기찬 정주여건을 갖추는 한편, 지속발전 가능한 그린에너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 자리 매김할 태안은 인구는 10만 명, 1인당 지역총생산(GRDP) 5천여만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관광객 2,000만 명이 방문하는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현재 농어촌 삶의 질 중하위권에 머무는 태안을 전국 50위권으로 진입시켜 제가 목표한 행복한 태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태안군수로의 취임에 맞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정말 반갑다. 선거 이후 지역 곳곳을 다니며,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마다, 군민마다 나를 원하는 다양한 군정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살기 좋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태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를 군수로 선택하신 이유와 해답을 확신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과제도 명확히 하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취임하는 7월부터 제가 구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안군의 모습을 그려나가도록 하겠다. 앞에서 밝힌 현안이나 공약사항 등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열정과 성원으로 저와 600여 공직자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더 살기 좋고 희망찬 태안으로 보답하겠다.

편안한 피서지 태안을 만드는 태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하나하나 퍼즐을 완성한다는 자세로 태안군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니, 계속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